



김원희

“사명감 갖고 소중한 인연 찾아드릴게요”

‘TV는 사랑을 싣고’ 새 MC 김원희
추억 속 인물 추적 과정 등 흥미로워
보고싶은 사람 많아 10년간 사랑 받을 것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과 호흡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촬영하러) 야외에 나가보니 진짜 찾아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KBS의 장수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의 새 MC 김원희(48)는 최근 간담회에서 프로그램에 임하며 남다른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TV는 사랑을 싣고”는 최근 3개월간의 정비를 마치고 9일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더욱더 흥미로워진 추억 속 인물 추적 과정, 2배로 짙어진 재회의 감동 등이 관련 포인트다. 채널도 1TV에서 2TV로 옮겨갔다.

김원희는 “TV는 사랑을 싣고”는 사랑받는 프로그램이고 보고 싶은 사람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MC와 제작진이) 진정성 있게 발로 댄다면 많은 분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희와 호흡을 맞춘 상대 MC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5)이다. 그가 고정 MC를 맡은 것은 ‘TV는 사랑을 싣고’가 처음이다.

김원희는 ‘초보 MC’ 현주엽에 대해 “운동선수였다 남자라 남의



현주엽

애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삶에 사연이 많았는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을 잘한다”며 “사촌 동생 같은 푸근함이 있다”고 했다.

현주엽은 “첫 정규 프로그램 MC라 고민이 많았는데 도전해보고 싶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베테랑 MC 김원희 씨도 있어서 재밌게 방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답했다.

그는 “막방”을 제외한 자신의 장점에 대해 “열정형이나 아저씨 같은 편안함과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주엽은 “시청자들은 잊고 지냈던 추억을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고, 출연하는 분들은 잊고 지냈던 지인과 추억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김원희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MBN ‘로또싱어’서 이휘재·김구라 호흡



이휘재

김구라

MBN은 다음 달 선요일 예능 프로그램 ‘인생역전 뮤직게임쇼-로또싱어’에서 이휘재가 MC를, 김구라가 예측단장을 맡는다고 9일 밝혔다.

‘로또싱어’는 가요·클래식·뮤지컬 등 각 장르 최정상 45명의 기수가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시청자는 관객의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최종 6명의 우승자를 맞이하는 신개념 배리어티 뮤직 쇼다. 이휘재는 변칙이는 재치와 특유의 입담을, 김구라는 음악 애호가로서의 지식과 남다른 촉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첫 방송. /연합뉴스

“날 괴롭히지만 상관없는 것들 글로 쓰고 싶었죠”

산문집 펴낸 싱어송 라이터 장기하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쌓였다는 ‘신호’를 받고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산문집 ‘상관없는 거 아닌가?’를 펴내는 싱어송 라이터 장기하(38·사진)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물하늘 때 이후로 음악 말고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다던 그는 이번 책을 통해 작가로 데뷔하게 됐다.

장기하는 지난해 1월 10년간 몸담은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활동을 마친 뒤 1년 동안 꾸준히 집필해 이 책을 완성했다. 하루하루 마주치고 겪는 일을 포착해 자기 생각을 확장해나가는 식으로 여러 쪽지의 글을 써 엮었다.

“나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 중에서 이렇듯 저렇든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죠.”

장기하와 얼굴들 곡 대부분을 직접 쓴 그지만, 책으로 만들어질 글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애를 먹기도 했다. 첫 쪽지를 쓸 때는 석 줄을 쓰고 이튿날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K팝의 역동적이며 강한 연대 의식, 서양 팬들에 신선”

외신기자들이 본 BTS 빌보드 석권 비결
아리랑TV 오늘 ‘포린 코레스폰던츠’ 방송

아리랑TV는 10일 오후 8시 외신기자들의 토크 프로그램인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방탄소년단(BTS)을 조명한다고 9일 예고했다.

녹화에는 덴마크 모르텐 라르센 프리랜서 기자, 프랭크 스미스 독일 도이체벨레 기자와 대만 양첸하오 프리랜서 기자가 참석해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다양한 K-콘텐츠가 ‘신한류’를 이끌 수 있을지 논의했다.

또 시더바우 새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를 연결해 K팝의 강점에 대해 들어봤다.

스미스 기사는 BTS의 쾌거에 대해 “현재 순위 집계 기준에 ‘스트리밍 실적’이 포함돼 실제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이라는 뜻”이라면서 “BTS는 소셜미디어에서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순위인 ‘소셜(Social) 50’ 차트에서도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194주 1위를 차지했고,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억뷰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라르센 기사는 “BTS는 온라인상에서 존재감을 잘 구축하면서 인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 아미(BTS 팬클럽명)를 대상으로만 홍보해도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 덧붙였다.

화상으로 연결한 새지 교수는 K팝의 강점을 “높은 프로덕션 가치, 훌륭한 상호 텍스트성, 군무를 중점으로 한 비주얼적 요소, 강한 공동체 의식” 등으로 꼽으며 “특히 K팝의 강한 연대 의식은 가수와 팬들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구축된 것인데, 이런 모습이



한국 대중음악 사상 첫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라는 쾌거를 이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지난 1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사진은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공연하는 방탄소년단.

서양 팬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스미스 기사는 “예전에는 음악산업을 미국 가수가 영여온 가수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BTS가 연에 산업의 세계화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양첸하오 기사는 한류의 시초에 대해 “한류란 단어는 대만에서 유래했는데, 대만 방송사들이 대거 사들인 한국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중국, 홍콩,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했다”며 “2010년 이후에는 K팝, 드라마, 예능, 라이브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한류 패키지 시스템’이 완성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류”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라르센 기사는 “K팝은 젊은 여성층이 타깃이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영화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조언했고, 양첸하오 기사는 “막방(먹는 방송)을 한국이 유행시킨 것처럼 앞으로는 주류 가수보다는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신한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10일 오후 8시 방송.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명품옷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옷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광호익스프레스
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사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땀발증·침증·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일번지식당
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 도로변)
흡연소방, 특대기요리,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뚝배기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어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명품크리닝전문점
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커트·운동화·가방·캐비닛·염색·복원·수선일체
주인 직접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